



보도시점 2026.7.23. (목) 17:00 배포 2026.7.23. (목) 17:00

주일한국문화원, 연상호 감독 · 박정민 주연 영화 ‘얼굴’ 일본 개봉 앞두고 특별 시사회와 무대인사 개최

- 최신 한국영화 상영을 통해 현지 한국영화 시장 활성화 지원 -

주일한국문화원(원장 박영혜, 이하 문화원)은 한국 영화 ‘얼굴’의 일본 개봉(8월 28일 예정)에 앞서, 현지 배급사 트윈과 공동으로 오는 7월 29일(수) 문화원 한마당 홀에서 특별 시사회를 개최한다.

영화 ‘얼굴’은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2025)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공식 초청되어 작품성을 널리 인정받은 작품이다. 국내 개봉 당시 100만 명을 넘는 관객을 동원한 히트 작품으로, 청룡영화상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등 10개 부문 후보에 오르는 등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입증한 서스펜스 미스터리 영화이다.

이번 시사회는 한국 영화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한류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3월 개최된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시사회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기획으로 문화원은 우수한 한국 영화 상영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서 등 다양한 매력을 전함으로써, 일본 현지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일 문화 교류를 더욱 증진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연상호 감독과 함께 영화 공식 개봉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주연 배우 박정민이 참석한다. 이들은 무대인사를 통해 직접 관객과 만나며 일본 현지 팬들과 소중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처	주일한국문화원 (pr@koreanculture.jp)	행사 담당	김강식	+81-3-3357-6054
		홍보 담당	조은경	+81-3-3357-5972

□ 상영회 개요

- 행사명 : 한국영화 「얼굴」 특별시사회
- 일 시 : 2026.7.29.(수) 18:30~
- 장 소 : 한국문화원 2층 한마당 홀
- 주 최 :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주식회사 트윈
- 내 용 : 영화 「얼굴」 상영 및 연상호 감독,
박정민 무대인사 외



□ 게스트 프로필

○ 연상호 감독

- 좀비, 기생생물, 저주, 초능력, SF, 코스믹 호러 등 흥미롭고 제한 없는 소재와 장르를 넘나들며 상업적 성공을 거뒀다. 「돼지의 왕」(2011), 「사이비」(2013)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초기 작품들의 세계관을 떠올리게 하는 이 작품에서 그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 감독 영화 : 군체 (2026년/감독·각본), 반도 (2020년/감독·각본), 서울역 (2016년 애니메이션/프로듀서·감독·각본), 부산행 (2016년/감독·각본) 외

○ 박정민 프로필

- 1987년 3월생. 「파수꾼」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이후, 한국 영화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왔다. 박찬욱, 류승완 등 명감독들에게 계속 기용되며, 연상호 감독과는 '염력'(2018), '지옥'(2021)에 이어 이번 작품이 세 번째 협업이다. 「동주」에서의 연기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는 처음 배운 피아노를 완벽히 습득하는 등 철저한 역할 준비로 정평이 나 있다.



- 출연 영화 : 휴민트 (2026년), 하얼빈 (2024년), 밀수 (2023년), 헤어질 결심 (2022년), 기적 (2021년), 타짜 : 원 아이드 잭 (2019년), 그것만이 내 세상 (2018년), 동주 (2016년), 감기 (2013년), 파수꾼 (2011년) 외